

미래 대전발전 도시계획의 연구방향

김흥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실장

01. 서론

급격한 도시성장을 경험한 우리의 도시는 최근 저성장, 환경, 교통, 주택, 고유문화의 상실 등 다양한 도시문제로 인하여 도시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즉, 도시성장 동력의 취약, 주거생활환경의 열악, 도시정체성의 미약, 그리고 도시자연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국토해양부, 2009).

이러한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장소로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도시문화의 다양성 증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등을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및 첨단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시기능이 고도화됨으로써 기존 도시환경에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런던의 경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야심찬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핵심내용으로는 고밀도 개발을 지향하는 콤팩트시티, 시민을 위한 도시, 번영하는 도시, 차별 없는 도시, 접근하기 쉬운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변화를 수용하는 도시 등을 도시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정달식, 2009).

대전지역의 종합연구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이 10주년이라는 역사를 이루어왔고, 앞으로 도 지금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대전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개괄하고, 아울러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성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특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미래 도시정책 방향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검토한 후, 앞으로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요구되는 도시계획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02.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성과

1. 연구성과 특성

지난 10년간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는 <표 1>에서와 같이 총 566건으로 연간 약 57건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대전시정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수행한 정책과제가 166건(2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한 기본과제를 156건(27.6%) 수행하였고, 각종 법정계획, 사업 및 정책적 타당성을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143건(25.3%)이었으며, 그리고 비교적 연구수행기간이 짧은 수시과제는 101건(17.8%)을 수행하였다.

■ 표 1 대전발전연구원 유형별 연구성과 현황(10년간)

(단위: 건, %)

구분 \ 유형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	계	
건수	156	166	101	143	566	<p>* 연구(건) * 비율(%)</p>
비율	27.6	29.3	17.8	25.3	100.0	

주: 연구대상이 대전광역시와 관련이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음.

한편, 부문별 연구성과는 <표 2>에서와 같이 총 566건 중에서 경제정책연구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치행정연구 99건, 교통계획연구 80건, 도시계획연구 76건, 환경정책연구 54건, 복지정책연구 49건 순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분야와 이들의 기반을 제공하는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시대의 시정목표가 주로 경제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등 도시의 비전을 실현시키려는 정책적 대응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성과물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국토정책 26건, 관광정책 24건, 과학기술 3건, 문화정책 21건 그리고 교육정책이 4건으로 대전시 시정 전문분야를 지원 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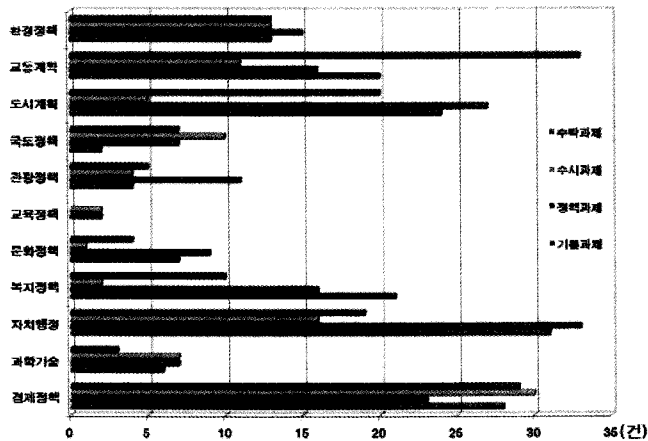
표 2 대전발전연구원 유형별 부문별 연구성과 현황(10년간)

(단위: 건, %)

유형 부분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	계
경제정책	28	23	30	29	110
과학기술	6	7	7	3	23
자치행정	31	33	16	19	99
복지정책	21	16	2	10	49
문화정책	7	9	1	4	21
교육정책		2	2		4
관광정책	4	11	4	5	24
국토정책	2	7	10	7	26
도시계획	24	27	5	20	76
교통계획	20	16	11	33	80
환경정책	13	15	13	13	54
계	156	166	101	143	566

주 : 연구대상이 대전광역시와 관련이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음.

■ 그림 1 유형별 부문별 연구성과 분포도(10년간)



2. 도시계획분야 연구성과 특성

지난 10여 년간 대전발전연구에서 도시계획분야의 연구는 총 76건이 수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정비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도시재생 14건, 도시비전 13건으로 나타나 주로 도시성장의 안정화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정비 및 재생과 중장기적인 도시비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성과의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도시기능 7건, 도시경관 6건, 공간구조 4건, 도시계획정보 3건, 국토정책, 녹색도시, 주택정책, 도시지표 등이 각각 2건을 수행하였다. 이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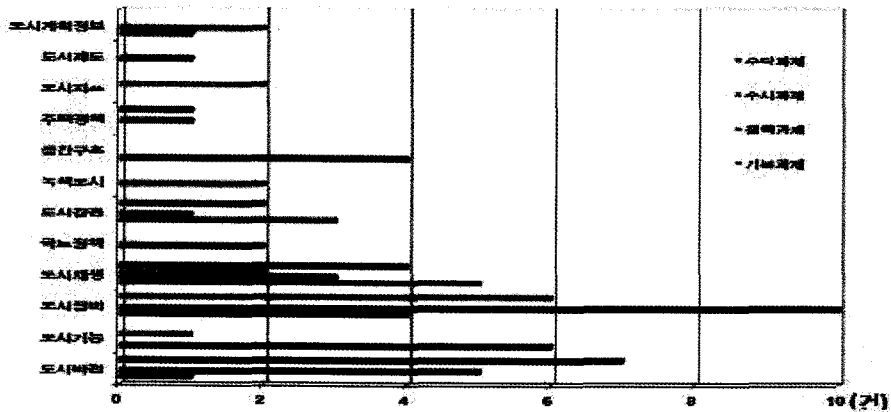
표 3 도시계획분야 세부 연구성과 현황(10년간)

(단위: 건, %)

도시계획 \ 유형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	계
도시비전	1	5		7	13
도시기능	6		1		7
도시정비	4	10		6	20
도시재생	5	3	2	4	14
국토정책		2			2
도시경관	3	1		2	6
녹색도시		2			2
공간구조	4				4
주택정책		1		1	2
도시지표			2		2
도시제도		1			1
도시계획정보	1	2			3
계	24	27	5	20	76

주: 연구대상이 대전광역시와 관련이 없는 연구는 제외하였음.

■ 그림 2 도시계획분야 세부 연구성과 분포도(10년간)



03. 미래의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1. 미래의 도시정책

오늘날 대도시의 도시문제는 도시개발확산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기존시가지의 주거생활환경의 열악, 신개발 확산에 따른 원도심 기능의 쇠퇴, 도시 내 지역간 공공기반 시설 서비스의 불균형, 무질하고 획일적인 개발에 의한 도시경관의 악화, 도시내의 산업기능의 쇠퇴 및 지역성장동력의 부재, 도시내 개발가능지의 부족,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적 협조체제의 미흡,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의 잠재력 방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 미래 도시정책의 목표 및 전략

목표	전략	세부추진 전략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재생을 통한 활기찬 도심으로 되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도시권에서 신·구시가지 동반성장 관리 • 쇠퇴도시권에서 군집화에 의한 도심활성화
	경쟁력 있는 미래 핵심 산업기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가지내 공업용지의 효율적 정비추진 • 시가지외 지역의 노후산업단지의 재정비 • 계획적 유도를 통한 공장난개발 방지
편리한 생활도시	쾌적하고 정감있는 생활환경 수준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 유도 •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 주거 환경 조성 •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법 적용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생애주기별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인프라 확충 • 교통약자가 활동하기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 • 다양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빠르고 이용이 쉬운 대중교통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권 및 대중교통 우선권 확립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네트워크의 구축 • 주요 역세권 중심의 치등적 입체고밀복합 개발
매력적인 문화도시	함께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환경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발굴 확산 • 도시의 근현대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문화포용정책 추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경관의 조성 • 도시경관디자인의 개선을 통한 도시민관의 질 향상 • 가로경관 정비에 의한 보행친화적인 도시공간 구현
깨끗한 녹색도시	저탄소생활을 실천하는 도시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생활 실현 • 미기후 조성과 친환경소재 도입으로 생태도시 실현
	맑은 물·푸른숲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맑은물 되살리기 • 녹지네트워크를 통한 푸른 숲, 파란하늘 가꾸기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재해투자 및 방재체계의 구축 • 안전한 도시를 위한 범죄 예방 대책 강화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이러한 대도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 도시정책 방향은 크게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편리한 생활도시, 매력적인 문화도시, 깨끗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8).

2. 미래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1) 스마트 성장

스마트 성장은 강한 경제와 스마트한 성장 실현을 위하여 교외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기존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도시성장의 속도, 위치, 방향을 계획적으로 결정하여 성장을 수용하며, 그리고 사회계층의 다양화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이해당사자간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성장의 실현은 다음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도시의 특성으로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첫째, 토지용도의 복합화이다. 주거지역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 업무시설을 근접 배치하는 방식은 도보나 자전거를 통한 접근을 용이 하도록 하며 가로의 활력을 높이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거기회 및 선택의 제공이다. 사회계층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갖춰진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득 및 연령계층을 배려한 주거유형 제공이다.

셋째,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이다. 커뮤니티의 역사, 문화, 경제, 지리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방문객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넷째,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이다. 세수의 낭비방지, 직주근처 실현, 기존 도시용 토지 및 기반시설의 활용, 교외녹지공간에 대한 개발 완화, 농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보존이다.

다섯째,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이다.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보행, 자전거, 도시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통수단 간에도 연계성 강화이다. 끝으로,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결정이다. 민간부문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승인절차나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장을 유도하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다.

2) 뉴어바니즘

뉴어바니즘은 기본적으로 근린규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근린중심부는 광장, 공공녹지 상징성을 가진 공공건축물과 같은 공공공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가로는 격자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상호 연결되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은 근린상호간 및 주변지역과 원활히 연결되어야 하며, 그리고 공원, 놀이터,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해야 한다. 이러한 뉴어바니즘의 실현은 다음의 기본원리를 도시개발 및 정비시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보행성 및 연결성이다. 일상생활시설은 집·직장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일부가로를 차 없는 보행전용도로로 건설하고, 교통 분산과 보행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격자형 네트워크 형성과 보행활동을 즐겁게 할 양질의 보행 네트워크와 공공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복합용도 및 다양성 확보이다. 단일 필지 내 상점, 사무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배치와 다양한 연령, 소득, 문화,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적 다양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의 혼합 및 양질의 건축과 도시설계이다. 다양한 유형, 규모, 간격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근접배치와 아름다운, 경관, 편리함, 장소감에 대한 강조, 커뮤니티 내 공공용도 및 부지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요구되며, 휴먼스케일의 건축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근린 공간구조의 형성 및 고밀도화이다. 근린중심지와 주변부의 차별화, 중심부에 공공공간을 배치, 오픈스페이스를 예술작품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영역의 질적 강화와 중심부의 고밀도 개발 및 주변부의 저밀도 개발, 특히 보행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과 주택, 상점, 서비스시설을 근접 배치이다.

끝으로 스마트교통 및 지속가능성이다. 도시와 마을, 근린을 상호 연결하는 양질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일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보행의 이용을 유도하는 보행 친화적인 설계와 생태학과 자연시스템의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 친화적 기술의 사용, 에너지 효율의 강화, 지역 생산물의 사용, 그리고 보행의 촉진 및 자동차 교통의 억제이다.

3) 대중교통중심개발

대중교통중심개발은 도시나 지역차원의 대중교통 중심축을 따라 형성된 결절점, 즉 버스 정류장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공공시설, 직장, 소매업, 서비스 시설 및 중·고밀도의 주택을 복합적인 형태로 집중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중심개발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 토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오픈스페이스의 보존을 기능하게 함, 연계교통망과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낮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보행자의 증가, 다양한 소득계층을 겨냥한 주택을 건설할 기회를 제공, 그리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촉진과 더 많은 사람들이 가로를 이용하고 감시의 눈이 많아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이다.

4) 압축도시

압축도시는 기존도심, 역세권과 같은 특징지역을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이 복합된 시설 물로 고밀 개발하여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집중시켜 활성화되도록 하는 도시개발 방식이며, 도시 전체적으로 밀도는 변화되지 않으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이 풍부한 친환경적인 저밀도로 유지될 수 있는 개발방식이다.

기본원리는 도시중심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개발유도,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쾌적성 제고, 주거, 위락, 상업업무를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의 의무화, 역세권과 교통결절점의 고밀이용과 주차공간의 제한,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재정확보, 그리고 광역적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의 도시정책 방향을 준거로 오늘날 도시계획의 과제를 정리하면, 양적·외향적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패턴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중심 방식으로 전환과, 경제성장, 국토 공간개발이 환경보전이나 삶의 질 개선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 국토 공간 발전방법, 절차에 대한 기본철학 결정 및 국민공감대 형성, 합리적·종합적 도시 성장기법의 연구 및 적용, 그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차원의 계획과 설계방식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이다. 직주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중교통수단과 도보,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며, 도시의 공간구조를 역세권 중심으로 개편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내 지역 공동체의 복원이다. 사회가 고도화, 복잡해지고, 개인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지역단위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단위이다.

셋째,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적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정책은 이러한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비전과 목표를 함께 설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에 대한 불신 및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04. 미래 대전발전 도시계획의 연구방향

1. 대전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에 관한 연구

대전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목표를 아름다운 환경도시, 국제적인 행정과학도시, 격조 높은 문화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우선, 아름다운 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방향은 기본적으로 대전이 청정한 도시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행정과학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미래형 자족적인 경제기반 강화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 국가의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와 연계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격조 높은 문화창조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미래 도시발전의 기반은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측면이 보다 도시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창조적 도시발전과 기존시가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다양한 하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이 대두된 공통점은 도시 간 경쟁의 심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정보사회의 도래, 도시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인식,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주거, 상업, 업무의 복합적인 용도를 담은 개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디자인과 예술, 문화 등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다(이주영, 2009).

이와 같이 21세기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스마트 성장과 뉴어바니즘, 유럽의 콤팩트 시티, 영국의 어반벨리지 등의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의 다양성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의존해서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하는 등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이란 노후한 주택과 건물, 좁은 도로 등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구시가지 내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주거문제 외에도 불안정한 일자리, 육아·보육 및 사회복지, 주차·쓰레기 처리문제, 범죄·생활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고용·복지·환경 등 해당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도시재생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양재섭·장남중, 2010). 이와 같이 도시재생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와 교육, 서비스 등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주택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전체 커뮤니티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들을 보강해야 하고, 거기에 친환경적 자연요소를 어떻게 끌어 들이느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대전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다양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대전의 공간적, 기능적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요구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을 통한 활기찬 도심으로 살리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방향은 절약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심부 재생방안, 신구시가지 균형성장 유도를 위한 광역적 정비방안, 기존시가지에서 인구 및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환경개선 방안,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 방안, 재집중을 위한 광역적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 그리고 원활한 도시재생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미래 도시상을 실현하는 녹색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기존의 도시계획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녹색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녹색도시의 원칙인 순환형 신진 대사 작용을 준수한다. 또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녹색도시계획은 저탄소 녹색도시가 요구하는 개념을 도시공간 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각 전문분야의 기술과 정책을 종합하는 것이다. 녹색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배치할 때 이동거리를 단축하여 불필요한 차량이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건축물 배치와 건축 및 용적률을 결정할 때에는 밀도를 고려하여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계획하는 도시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압축도시(Compact city)다.

이러한 녹색도시가 실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대전시와 같이 이미 형성된 대도시에서는 도시의 성장 관리 측면에서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녹색도시계획을 하나의 전문연구 영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지식·정보화를 실현하는 U-City에 관한 연구

U-City는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현대 도시문제로부터 U-City의 수요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U-City는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 등 물리적 공간에 정보통신기술(ICTs)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보화 시대의 도시계획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다(이양재, 2009).

U-City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도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토지, 교통, 방재·안전, 환경·에너지, 공원녹지, 도시경관, 시민참여, 공간적 제약, 사회적 격차 등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U-City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도시형태의 변화 등 미래도시상 실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정보 및 U-City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상태로 향후 도시계획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인 U-City 연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한 도시생활의 다양성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저성장·고령화 대비 도시계획적 대응 연구

인구 저성장과 노령화는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선 인구의 저성장은 주택 및 도시용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감소를 초래하고, 도시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정체 및 하락, 도시의 시설별 이용실태 및 개발수요에 영향, 그리고 생산가능 인수의 감소,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정체 또는 하락, 저축률의 감소, 경제성장률의 하락, 개인 소비성 지출증대, 구매력 감소 등으로 연결된다.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공급제한 및 노동력의 평균연령 상승유발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능의 전환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구성장·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계층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사회 및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수변공간에 관한 연구

도시에서 수변공간은 쾌적성, 개방성, 안정감 등 물이 가진 특성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다. 또한 주민이나 도시생활자에게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연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김정은, 2007).

이러한 수변공간의 가치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수변공간의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는 수변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접목할 때 여러 사회적·공간적 요구를 반영하여 좀더 생활에 밀착되면서 풍부한 환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변개발보다는 도시의 성장과 관리의 측면에서 안정되고 장기적인 도시 활성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는 친수공간의 독자성은 물과 관계성에서 비롯되므로 무엇보다도 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계획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지역에 따라 개발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변공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변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테마로는 크게 도시 어메니티 증진, 도시기능의 효율화 추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전략, 그리고 자연친화형의 수변공간 유지·발전 방안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7.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공간적 특성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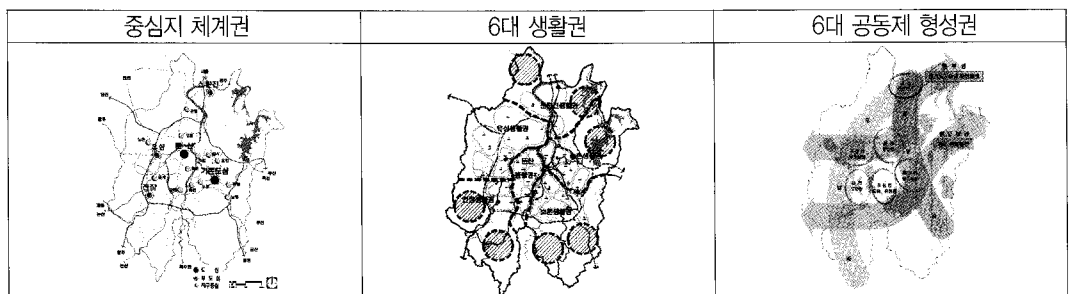
대전시의 공간구조는 크게 2개의 도심과 3개의 부도심, 그리고 13개의 지구중심으로 기능적 특성화를 통하여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심차원에서는 기존도심은 광역교통 및 일반업무 중심지, 동남부지역의 거점지, 둔산도심은 행정, 업무, 금융의 중심지이다. 부도심 차원에서는 유성은 관광·위락·국제교류의 중심지, 서북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 진잠은 물류·유통의 중심지, 서남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 그리고 신탄진은 도시기반산업의 중심지, 청원·주지역과 연계한 동북부지역의 거점으로 기능적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과 효율적인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권 차원에서 대전시는 6개 대생활권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20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도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탄진 생활권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2천 년대 중부권산업 발전의 중핵지, 유성 생활권은 관광, 위락 첨단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종합 관광, 위락의 요람지, 둔산 생활권은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금융의 중심지, 송촌 생활권은 중심상업, 업무, 위락, 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21세기 고도정보화, 교통의 중심지, 진잠 생활권은 물류·유통 주거를 중심으로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 및 친환경적 전원주거지역, 그리고 보문 생활권은 중심상업, 위락, 문화물류·유통을 중심으로 한밭의 상업, 문화의 심장부로 하는 생활권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는 금강과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통합하여 도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6대 도시공동체권역을 설정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신탄진권 산업지원 배후도시 직주복합모델지구, 갑천-둔산권 국제업무·과학도시 문화예술 중심지, 유등천-도마·유천권 화합과 연대의 도시 생태문화 체험의 장, 대전천-원도심권 교류와 만남의 도시 대전문화의 발신지, 유성천-유성권 여가 문화의 관광도시 건강·휴양의 중심지, 갑천-도안권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여가 문화·생태체험 중심지의 특성화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3 대전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계획권 현황도



위와 같이 대전시의 도시공간 영역은 도시발전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와 형태가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다양한 도시기능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간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 도시

공간을 기능적 전문화를 위해서는 공간적 특성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4. 결론

지난 10년 동안 대전발전연구원은 지역의 종합연구기관으로써 많은 연구성과를 내었다. 앞으로는 미래 트렌드 변화를 대전발전의 기회요인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역의 현안문제 및 정책적 대안 뿐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급변하고 있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도시공간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하면서 뉴어바니즘, 압축개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복합 용도개발, 입체적 토지이용 등 다양한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 보전,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 등으로 불리면서, 도시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 계속되어 오는 관심이슈이다.

이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현대적인 공간이면서도 역사문화가 숨쉬는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에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용도복합, 도시디자인, 녹색성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다시 재생하는 도시재생의 과정이 요구된다.

끝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대전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중장기

적인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풀어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인간중심의 도시로 바꾸는데 다양한 작은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
- 김은경, 2009, 대도시권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정은·박성재, 2007 “친수공간으로서의 워터프론트 개념과 활용방향”, 물과 미래, VOL.40 NO.5.
- 마쓰나가 야스미쓰 지음, 진영환외 옮김, 2006, 도시계획의 신조류, 한울 아카데미.
- 양재섭·장남중, 2010, “친서민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 국토 2010년 10월, 국토연구원.
- 이양재, 2009, “U-City의 성공을 위한 제언”, 도시정보, NO.32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주영, 2009, 21세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보성각.
- 정달식, 2009, 도시, 변혁을 꿈꾸다, 산지니.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http://blog.grasslog.net>)
- Roberts, P and Sykes, H.(eds), 2000, Urban Regeneration : A Handbook, SAGE Publications.